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조 유 리 (전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김 경 신 (전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부부 모두를 대상으로 부부갈등과 갈등대처행동 및 결혼만족도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사회인구학적인 변인과 개인적 변인, 관계적 변인에 따라서 부부갈등과 갈등대처행동 및 결혼만족도는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분석하여, 이러한 변인들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광주시내에 거주하면서 이혼, 별거, 사별하지 않고 결혼상태에 있는 부부 350쌍을 조사하여 그 중 219쌍(438명)의 질문지가 최종분석에서 사용되었다. 조사도구로는 자기보고식으로 답하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갈등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경우 부부갈등 정도가 보통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보다 부인이 부부갈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갈등영역에서 부부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부부갈등영역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개인적 특성영역과 공동생활 특성영역에서 남편보다 부인이 갈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대처행동의 일반적인 경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남편보다 부인이 갈등대처행동을 더 많이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성적 대처행동과 외부도움 요청을 남편보다 부인이 더 많이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의 결혼만족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인보다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관련 변인에 따른 부부갈등, 갈등대처행동 및 결혼만족도는 다음과 같다. 관련 변인에 따른 부부갈등을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 개인적 특성영역에서 소득수준이 100만원 이하인 집단,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인 집단, 의사소통 효율성이 낮은 집단에서 부부갈등을 더 많이 느낀다고 나타났다. 부부관계적 특성영역에서는 소득수준이 100만원 이하인 집단, 결혼기간이 16년 이상인 집단, 종교가 없는 집

단,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 의사소통 효율성이 낮은 집단에서 부부갈등을 더 많이 느낀다고 나타났다. 공동생활 특성영역에서는 직업이 기술·기능직인 집단, 소득수준이 100만원이하인 집단, 자녀수가 3명 이상이 집단,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 의사소통 효율성이 낮은 집단에서 부부갈등을 더 많이 지각한다고 나타났다. 제삼자 특성영역에서는 직업이 기술·기능직인 집단, 소득수준이 100만원 이하인 집단, 자녀수가 3명 이상인 집단,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 의사소통 효율성이 낮은 집단에서 부부갈등을 더 많이 느낀다고 나타났다.

부인의 경우 개인적 특성영역에서 취업을 한 집단, 소득수준이 100만원 이하인 집단, 의사소통 효율성이 낮은 집단에서 부부갈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관계적 특성영역에서는 소득수준이 100만원 이하인 집단, 확대가족인 집단, 의사소통 효율성이 낮은 집단에서 부부갈등을 더 많이 느낀다고 나타났다. 공동생활 특성영역에서는 소득수준이 100만원 이하인 집단, 의사소통 효율성이 낮은 집단에서 부부갈등을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삼자 특성영역에서는 취업을 한 집단과 의사소통 효율성이 낮은 집단이 부부갈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변인에 따른 갈등대처행동을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 이성적 대처행동은 연령이 35세 이하인 집단, 학력이 대졸이상인 집단, 소득수준이 201만원 이상인 집단, 결혼기간이 10년 이하인 집단, 결혼유형이 연애결혼이나 절충혼인 집단,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인 집단, 의사소통 효율성이 높은 집단, 모든 갈등영역에서 갈등을 적게 지각하는 집단이 이성적 대처행동을 많이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도움 요청은 의사소통 효율성이 높은 집단에서 더 많이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피행동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 의사소통 효율성이 낮은 집단, 모든 부부갈등영역에서 갈등을 더 많이 지각하는 집단이 회피행동을 더 많이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행동 표출은 연령이 46세 이상인 집단, 학력이 고졸 이하인 집단, 직업이 기술·기능직, 단순노무직, 자영업인 집단, 소득수준이 100만원 이하인 집단,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 의사소통 효율성이 낮은 집단, 모든 갈등영역에서 갈등을 더 많이 지각하는 집단이 감정·행동 표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경우 이성적 대처행동은 소득수준이 201만원 이상인 집단, 절충혼인 집단,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 의사소통 효율성이 높은 집단, 모든 특성영역에서 갈등이 적은 집단이 이성적 대처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도움 요청은 연령이 35세

이하인 집단, 종교를 가진 집단,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 성역할태도가 중간인 집단, 제삼자 특성영역에서 갈등이 많은 집단이 외부도움 요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피는 고졸 이하인 집단, 가족형태가 핵가족인 집단,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인 집단, 의사소통 효율성이 낮은 집단, 모든 갈등특성영역에서 갈등이 많은 집단이 회피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행동 표출은 의사소통 효율성이 낮은 집단, 모든 갈등영역에서 갈등을 많이 지각하는 집단이 감정·행동 표출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변인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살펴보면, 남편은 학력이 대졸이상인 집단, 결혼기간이 10년 이하인 집단,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 의사소통 효율성이 높은 집단에서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경우는 취업을 하지 않은 집단,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 의사소통 효율성이 높은 집단에서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행동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살펴보면, 부부갈등에 따른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모든 영역에서 남편과 부인 모두 갈등이 적은 집단이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대처행동에 따른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이성적 대처행동을 많이 하는 집단, 회피행동을 적게 하는 집단, 감정·행동 표출을 적게 하는 집단이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효율성이 높을수록, 개인적 특성영역과 제삼자 특성영역에서 갈등을 적게 느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변인들이 남편의 결혼만족도를 70% 설명해 주고 있다. 부인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효율성이 높을수록, 부부관계적 특성영역과 공동생활 특성영역에서 갈등을 적게 느낄수록, 제삼자 특성영역에서 갈등을 적게 느낄수록, 감정·행동 표출을 적게 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변인들이 부인의 결혼만족도를 61% 설명해 주고 있다.